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총평 분석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 총평

- 2024. 11. 14. 상상국어평가연구소

### 01 출제 경향 및 난이도

“① 독서의 추론적 요소 약화 기조 계속, ② 일부 고난도 문항을 통한 변별력 확보, ③ 문학과 선택 과목의 난도 하락”

올해 수능은 어려웠던 지난 수능에 비해 쉽게, 지난 9모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독서의 경우 실제 EBS 체감 연계율은 높지 않았으나 인문 복합 지문에서 논리학 대신 동양사 제재를 취해 난도가 지난 수능과 6모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정보량은 많은 편이었으나 문항에서 힘을 뺀 것도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인 요인이다. 문학과 갈래 복합과 현대 소설을 중심으로 어려웠던 지난 수능에 비해 평이했다. 다만 특정 문항(8번, 27번 등)의 난도가 높아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한 고심이 엿보인다. 지난 수능에서 오답률 1위(화작), 4위(언매)를 각각 배출한 선택 과목은 올해 뚜렷한 고난도 문항을 찾기 힘들었다. 적절한 시간 안배를 통해 일부 고난도 문항을 해결했는지 여부가 1등급 획득의 관건이 될 것이다. 등급컷은 화작 93~94, 언매 91~92(원점수, 1컷 기준)점으로 예상된다.

### 02 영역별 분석

#### ■ 독서

올해 수능 독서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네 세트 모두 EBS 연계가 이루어졌으나 연계율이 지난 6모, 9모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 분량의 경우, 인문 복합은 지난 수능과 비슷했고 기술은 길어진 반면 사회는 짧아져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독서론(수완 p.182 ‘학습 독서’ 연계)은 기출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밑줄 긋기’라는 단일한 제재를 다루어 논지가 집약적이며 평이했다. 3번 문항의 경우 핵심 제재를 구체적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되, 기호를 활용한 시각적 효과를 반영한 것이 특이했다. 인문 복합 지문(수특 p.71 ‘개화기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인들의 생각’ 연계)은 23, 24학년도 수능에 이어 동양사 및 사상 지문이 출제되었다. 참고로 올해 6모와 9모에서는 각각 논리학과 예술 비평을 다룬 바 있다. (가)의 경우 핵심 개념이 ‘과학 기술’에서 ‘개화’로 바뀌었으며, 직접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진 부분은 마지막 문단 정도다. 개화 개념의 변천사와 중국 근현대 지식인들의 사상을 제시하되 정보량이 기본적으로 많고, 정보 간의 비교와 적용 등 세부적인 판단을 요하는 일부 문항들로 인해 일정 난도를 확보했다. 선지 표현을 꼬아 낸 7번, 지문과 <보기>의 정보를 연결하되 정오 판단의 근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8번 문항이 어려웠다. 기술(수특 p.170 ‘인공 지능과 기계 학습’ 연계)은 정보량은 많았으나 ‘순확산’과 ‘역확산’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소개되었고, 문항들의 추론적 요소가 높지 않아 지문에 비해 난도가 높지 않았다. 다만 13번 문항은 지문 내용 전반을 활용해야 하고, 최근에는 등장하지 않던 이미지 자료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까다로웠다. 사회(수특 p.38 ‘고프먼의 사회적 상호 작용’ 연계)는 1문단에서 리프킨의 ‘자기 표현’ 이론을 잠깐 소개했을 뿐 지문의 핵심 논지는 EBS와 관련 없었으나, 어려운 개념어가 없고 각 문단이 유기적으로 전개되어 평이한 수준이었다. 다만 16번 <보기> 문항은 출제 형식에 변화를 주었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문학** EBS 연계 작품으로는 「정을선전」, 「배를 밀며」, 「갑민가」가, 비연계 작품으로는 「혼자가 가는 먼 집」,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 1편이 출제되었으며 약 43%의 연계율을 보였다. 「정을선전」은 지문 전부를 EBS 교재 수록 부분에서 발췌하되 EBS와는 다른 판본을 활용한 점이 특이했다. 「갑민가」 역시 EBS 수록 부분에서 발췌하여 9모에 이어 학생들의 체감 연계율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에서는 다수가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이 소요되게 설계했다. 고전 소설의 경우, 특정 대화와 전체 서사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한 18번 문항, ‘학습 활동’의 요소를 활용하여 형식적 변화를 준 20번 문항이 눈에 띄었다. 갈래 복합은 허수경, 이광호 등 학생들에게 생경한 작가들의 비연계 작품이 등장해서 난도를 확보했으나 <보기>에서 감상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27번 문항은 경쟁 선지의 존재와 함정을 판 정답 선지로 인해 난도가 높았다. 현대 소설도 생소한 작품이며 사변적 내용을 전개했으나 서술 방식과 사실 정보 확인에 그쳐 깊이 있는 감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고전 시가 또한 작중 상황에 대한 기본 정보를 묻고 있어 평이했다.
- **화법과 작문** 지난 9모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올해 6모와 9모의 중간 정도의 난도를 보였다. 모든 세트가 친숙하거나 흥미로운 제재를 다뤘고 정보량도 많지 않아 부담이 없었다. 화법 36번은 이미지가 아닌, 글 정보로 자료를 대신하여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화작 융합에서는 학생의 메모를 활용한 39번, (가)와 (나) 지문, 문항에서 제시된 내용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40번 등 기존 유형에 약간의 형식적 변화를 준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작문의 경우 언제나 고난도로 출제되었던 45번 자료 활용 문항이 선지만 보고도 인과관계가 잘못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 **언어와 매체** 언어는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지문형에 중세 국어가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이 모르는 내용이나 알고 있더라도 다시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제시하겠다는 평가원의 의도가 엿보인다. 중세 국어 표기 원리와 예시를 전면적으로 다루어 정보량도 많고 구성이 장황했다. 문항 풀이 과정에서 지문과 선지를 오가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나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다. 38번의 경우 각 단어의 음운 변동에 나타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답이 ①번에 배치되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39번은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 순서상의 변화를 주었고, 선지가 ‘~일 수 있다/없다’로 표현하여 참신했다. 매체는 각각 24학년도 9모와 25학년도 9모를 각각 변형하여 출제하였으므로 기출에 대한 훈련이 된 학생들은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 03 상상 모의고사와 수능

올해 6모는 역대 시험 중 가장 어렵게, 9모는 가장 쉽게 출제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수능은 극단적 난도를 지양하되, 일정 정도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일부 문항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능 국어는 선지를 적절한 수준에서 패러프레이징하기, 복수의 정보를 비교, 대조하기 등 사실적 정보를 중층적으로 결합하여 난도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연계 지문을 중심으로 기출 유형을 반복 훈련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학생 여러분과 함께 상상 모의고사는 그 임무를 충실히 해낼 것이다.